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기준금리 추가인상 결정 배경 및 시사점

- 중국인민은행은 통화긴축을 위해 작년 10월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(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및 대출금리)를 인상한데 이어 춘절연휴 마지막날에 25bp 추가 인상함.
 - 춘절연휴 마지막 날인 2월 8일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1년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25bp 인상(인상 후 1년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각각 3.0%, 6.06%)해 2월 9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.
 - 2010년 기준금리를 2회, 지급준비율을 6회 인상한 중국정부는 올해에만 이미 지급준비율(1월)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통화긴축정책 의지를 강하게 시사함.
- 이번 추가금리 인상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 신규대출 및 지방정부의 과잉 투자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,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내수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존재함.
 - 이번 금리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작년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4.6% 급등하고 올해 1월에도 최대 명절인 춘절효과로 인한 소비급증, 농산물 작황부진, 유가 및 인건비 상승, 미국의 양적완화 등의 영향으로 예상치인 5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따른 것임.
 - 또한 신규대출 증가세 완화, 지방정부의 과잉투자 등 경기과열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등 긴축기조를 강화하려는 포석도 담겨 있음.
 - 이번 발표로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수출감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원유, 구리 등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으며, 특히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과열을 겪고 있는 인도, 인도네시아, 태국,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금리 인상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함.
 - 그러나 일각에서는 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신규투자 중 금리에 덜 민감한 정부 주도의 투자비중(신성장산업, 인프라투자, 보장성주택 건설 등)이 크기 때문에 연이은 금리인상에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음.

(상해증권보, 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, 2/9)